

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, 청년농 목소리 반영... 농지지원 확대 추진

✎ 김규철 | ㉠ 승인 2026.04.08 14:21



김상범 여주이천지사 농지은행 부장(맨 왼쪽)이 관내 청년농업인들과 소통협의체 간담회 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사진=농어촌 공사 여주이천지사

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가 청년농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소통에 나섰다.

여주이천지사는 최근 관내 청년농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.

이날 지사는 청년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농지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. 이 자리에서는 청년농의 애로사항뿐 아니라 농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도 공유됐다.

지사는 농지은행의 ‘맞춤형 농지지원사업’과 ‘농지임대수탁사업’을 통해 지난해 4천604곳 농가에 14.4ha 규모의 농지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고 있다.

특히 올해부터는 선임대 후 매도 사업과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등 청년농 대상 지원예산을 확대해 초기 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최종태 지사장은 “청년농이 미래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며 “이번 간담회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김규철 기자



김규철 kimkc6803@joongboo.com

저작권자 © 중부일보 - 경기·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